

고흥에 국내 최초 '농업 AI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실증단지 운영시스템 도입 생육·수확량 예측 등 서비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고흥군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운영시스템에 국내 최초로 '농업분야 AI(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했다.

고흥군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실증단지 운영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농업인·연구기관·기업을 위한 표준화된 고품질 데이터 활용 기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단지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실증데이터 수집·저장·분석 기능은 물론 인공지능(AI) 기반의 작물 생육, 질병, 수확량 예측 등 스마트팜 경영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운영시스템은 지난해 10월에 구축을 시작해 올해 5월까지 분석·설계와 구축·개발을 마치고 안정화 단계를 거쳐 14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는 총 15개 구역(4.05ha)으로 구성돼 있다. 유리온실 11구역(1.93ha), 노지 4구역(2.13ha)으로 나뉘어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는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농업용 로봇, 온실관리

솔루션, 에너지 절감 모델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실증을 통해 신기술과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이 공간은 기업지원 전문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운영시스템은 데이터 기반의 농업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정보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내·외부 데이터 수집과 연계 기능, 실증단지 통합 운영관리, 통합 데이터 저장, 생육 자동 측정, 디지털 관제시스템, AI 플랫폼 등을 구축했다.

특히 이번 운영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농업분야

AI 플랫폼을 구축했다. AI 플랫폼을 통해 영농인, 연구자, 기업(관)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인공지능 모델을 응용·개발할 수 있다.

고흥군과 위탁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는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실증데이터 분석, 시각화, 학습 모델링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실증단지 운영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최초로 데이터 기반 서비스모델을 구축해 농업 전후방산업의 동반 성장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순천중앙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신규 지정

원도심 응급의료 서비스 확대

순천시는 최근 순천중앙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환자분류소, 응급환자진료구역, 검사실, 처치실과 환자감시장치, 인공호흡기 등 전문장비 및 의사, 간호사 등 24시간 전담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번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은 원도심 지역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순천시가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순천중앙병원은 새로 채용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 등 의료진이 24시간 응급진료를 하게 된다.

현재 순천지역 응급환자 병원 이송 건수는 연간 12,100건으로 하루 평균 33명의 환자가 119 등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번 지역



순천중앙병원.

응급의료기관 지정으로 원도심 주민의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순천시에는 이번 신규 지정된 순천중앙병원을 비롯해 순천의료원, 순천한국병원, 순천제일병원 등 총 4곳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운영중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군 차산업 발전 위한 정책 토론회

차산업법 개정 법령안 논의

보성군 '차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0일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진>

보성군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실, 전남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김철우 보성군수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 4개군 차산업 및 차문화 종사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보성차문화연구원 초기정 회장의 '차산업법 일부 개정을 위한 제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학생 대상 다례 등 차문화 교육과 유기농 녹차 학교 급식 정책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차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 이날 토론회는 '차산업법의 개정과 차산업 발전을 위한 법령안 제안', '청소년을 위한 차문화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펼쳐졌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우리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보성군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미 제정된 차산업법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더욱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토론회 이외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협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곡성군, 중소기업 근로자에 주거비 지원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

곡성군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거비용 240만원을 지원한다.

곡성군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2024중소기업 전입 근로자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곡성지역에 등록된 기업 등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240

만원의 월세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무주택 근로자다. 곡성지역으로 전입해 생활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180% 이하다. 14일부터 30일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곡성군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별로 최대 300만원의 물류비도 지원하고 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

GS칼텍스 희망에너지교실 아동 100명 남미 음악·춤 공연

예술마루 소극장서 합동 발표회 11개 지역아동센터 창작 무대

GS칼텍스(대표 허세홍 사장)는 지난 10일 여수시 GS칼텍스 예술마루 소극장에서 '2024년 GS칼텍스 희망에너지교실 합동 공연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S칼텍스에 따르면 여수지역 11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참여한 아동 100여명은 10일 학부모 등 3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미의 음악과 전통춤을 예술마루 무대에서 선보였다.

아이들은 'Ola- 남미 놀이터로 모이자' 제목의 공연을 통해 남미의 여러 리듬에 맞춰 전통춤을 추고, 전통악기를 연주했다. 한국의 강강술래와 비슷한 '삼바지호다' 춤은 공연의 백미로 꼽혔다.

김정희 연합회장은 "GS칼텍스와 여수지역아동센터가 15년째 운영 중인 희망에너지교실에서 올해는 11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100명이 참여하는 남미 음악 예술을 기반으로 한 특별한 합동 공연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연에 참여한 한 아동은 "처음에는 춤추는 게 어렵고 낯설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2024년 GS칼텍스 희망에너지교실 프로그램 참여 아동들과 조계원 국회의원, 학부모 등이 공연 발표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S칼텍스 제공>

오영철 GS칼텍스 설비 공장장은 "아동들이 창작 공연 무대처럼 세상이라는 큰 무대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건강하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S칼텍스는 2010년부터 여수지역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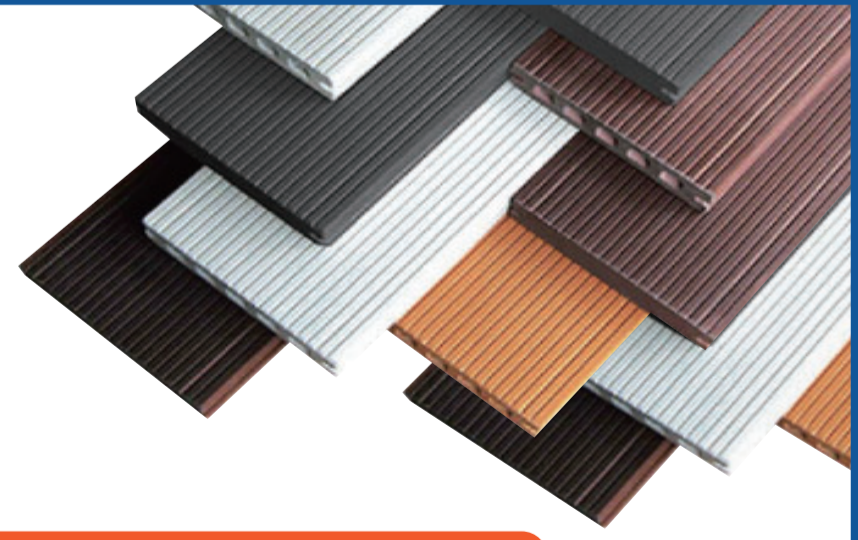
센터와 함께 희망에너지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누적 5500여명의 여수지역 아동들에게 꿈과 비전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줬고 지역 역사탐방, 환경 인식 제고, 다양한 문화 예술적 체험 등의 기회를 마련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ISO9001 |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